

Veterinary Medicine and Veterinarians in Society



천 명 선 DVM, PhD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smash93@hanmail.net

‘수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다. ‘한 5년 쯤 후에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경제적으로 약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2009년 대한수의사회 및 지역 수의사회 연수 교육에 참여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전문직업성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수의사들은 업무와 동료와의 대인관계, 자기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에 가까우나 근로조건, 근무환경,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¹⁾. 2005년도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²⁾

우리나라 수의사들의 업무만족도는 라이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3.65로 미국 수의사들의 평균적인 직업만족도 3.87보다 약간 낮지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³⁾ 수치적인 결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 수의사들의 직업만족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이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 어떤 요소들이 직업 전망을 좌우할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석에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것 같다.

Veterinarian as a Professional

최초의 수의학 전문교육기관 설립 250 주년이 되는 2011년은 ‘World Veterinary Year’ 로 ‘수의사’ 라는 전문직이 250년을 발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수의사회는 2013년 창립 1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수의학의 역사와 전문직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수의사 단체의 성립은 전문 교육기관이나 학술단체의 구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이다. 수의

1) 설문결과는 근간 학술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 이흥식, 이승욱, 수의사 실태 및 임상수의사의 수급전망, 수의사 수급 및 장단기 전망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수의사회, 2005. pp11-82

3) DR Ilgen et. al. Veterinary Medicine Careers: Present Practices and Futrue Needs as Seen by Veterinarians and College Students,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3.

사란 직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전문직업성(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이란 전문직업에 대한 의식이며 전문가 기질로 그 전문직업을 갖는 구성원들의 가치 평가를 담고 있는 특성이다.

또한 하나의 직업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특수한 직업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직업군은 고도로 체계화된 이론적 지식을 소유하고 직업 성원들은 공식화된 장기간의 훈련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요구받지만, 또한 직업구조상 상층직업집단에 속하며 사회로부터 그 분야의 독점권을 보장받는다.⁴⁾

이 과정에서 전문직 집단은 집단 내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윤리적인 규제를 갖추는 것으로 그 독점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단한 자기 노력을 거친다.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전문화의 경향이 보편화 되어 왔다.

Hall의 전통적인 전문직업성 개념을 적용하면 전문직은 전문가 조직에 대한 준거성(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공공 봉사에 대한 신념(Belief in public service), 자기 통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self regulation), 소명의식(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자율성(Autonomy)의 다섯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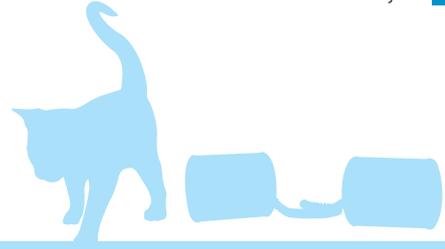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이 발달한 대중에 의해 전문직의 쇠퇴 현상인 '탈전문화'⁶⁾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사회적 분위기, 일반 대중의 교육수준 향상, 보조전문직 성장, 직업윤리에 대한 의문, 의료조직의 관료화 등이 의사들의 탈전문화를 부추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훼손시키고 의료 업무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4)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3.

5) 김문조, 한국사회의 직업의식, 현상과 인식, 46, 1989, 26-52. 1960년대 사회학자인 R. Hall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다양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전문직업성을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척도를 측정하는 professionalism scale을 개발한바 있다.

6) 탈전문화 현상은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이 누리던 특권과 권위가 상실되어 가는 현상으로 전문직이 자율성을 위협하게 된다.



전문직은 한 사회에서 훈련학교, 대학교육, 지역협회 구성, 전국단위 협회 구성, 국가수준의 자격관련 법률 제정, 직업윤리 현장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성숙되고 발전되어 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의사 역시 수 백년에 걸쳐 전문직의 발달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며 그 전문성을 강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초기에는 일본의 시스템을, 이후 미국식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의 사정은 약간 다르다.

그 시기가 산업혁명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선 상당히 늦다. 또한, 이미 현대화된 사회에서 이미 탈전문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비로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즉,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간 축적되어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된 셈이다. 따라서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 표.1 우리나라 수의사 전문직의 발전과정 〉

	고등교육	면허제도	국가고시	단체 및 윤리강령
일제 시대	1908 수원농림학교 수의숙성과 1937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축산과	1937 조선수의사규칙	1941 조선수의사시험규칙	1907 대한수의회
대한 민국	194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	1956 수의사법	1957 수의사시험령	1952 대한수의사회 1992 대한수의사회윤리강령

2009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직업성 척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의사들은 전문가 조직에 대한 준거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그 밖의 요소들은 중첩되거나 통합된 형태로 보여 졌다.

또한 이들 요인에는 직무만족도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과 공공봉사심은 오히려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2006년 보건의료 산업 직업 연구 조사결과⁷⁾와 비교할 때 자기통제에 대한 신념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7) 한상근 외,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2006년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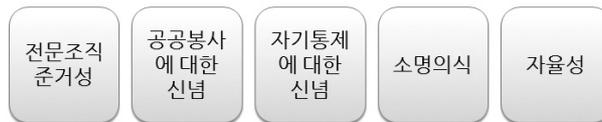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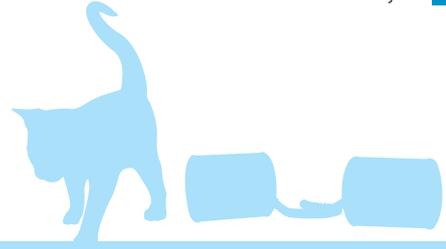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척도 조사 결과(2006년과 2009년)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완성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다. 때로는 구조적, 조직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수의사 개개인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수의윤리나 수의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현재 우리 수의학 교육 상황에서 훈련 받기 어려운, 지금까지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되었던 과제들이다.

위의 설문에서 수의사들은 자기개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가치 및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리더쉽, 경영지식 및 실무 역량을 전공지식과 기술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나 이후의 평생교육이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 모든 역량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직업만족도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들이다. 이것이 수의사의 전문직업성을 고양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항상 동물의료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분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의약분업, 학의학/의학 분쟁,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학교육 표준화, 탈전문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의료인들의 윤리 및 사회 봉사에 대한 강조,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이해 소통, 의료계 내부와 외부의 갈등 분석, 구성원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앞으로 더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전문직에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런 흐름이 수의 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Ability to Serve as well as Lead"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서 수의사가 가지는 특성, 우리 사회에서 수의학의 특수성, 수의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의사의 역량, 사회로부터의 요구, 경제상황을 반영한 수의사 직업 전망 및 동물진료 시장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와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주제도 매우 드물게 논의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인 인정과 신뢰, 존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의 부산물이 아니며,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봉사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진료 상황에서의 보호자, 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는 국민 전체와의 접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를 표방하고 있으며, 공학 분야에서도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수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 부정, 광우병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또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전문 분야인 동물 진료, 식품위생, 공중보건, 동물복지에서조차도 수의사와 수의사 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거나 포기할 때, 방어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이미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 위치를 잃게 된다.

탈 전문화의 문제는 의학이나 약학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중은 발달된 정보망을 통해 끊임없이 수의사를 비교하고 불신하며 전문직의 자율성을 훼손해올 것이다.

8)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2003, 같은 책.

미국 National Commission on Veterinary Economic Issues의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의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도, 타인에 대한 도움, 균형 잡힌 목표의 달성,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의 추구, 개인적·직업적 성장에 필요한 보상으로 정의된다⁹⁾.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수의사 개인은 분야에 알맞은 전문지식을 갖추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수의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그리고 향후 10년 후, 50년 후 수의사의 업무와 환경에 대해 예측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는 그 사회에 필요한 수의사의 기준과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시장분석, 수요분석, 직무 분석 보고서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¹⁰⁾.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지속적인 대중과의 소통, 사회 문제 해결의 참여를 위한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의학이라는 분야 역시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유기체처럼 자라고 성숙해 나가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주어진 지위와 경제적 특권에 대한 보장을 쟁취하는 것만이 전문직으로서 수의사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미 선진 사회에서 이런 전문직의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에게 학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소유자가 될 권리는 없으나 도덕적 관리인이 되어야 할 의무는 있다¹¹⁾” 신뢰받는 수의학의 미래와 지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9) JW Lloyd, LJ King, JS Klausner, H Donna, National Workshop on Core Competencies for Success in the Veterinary Profession, JVME, 30(3), 2003, 227-23

10) NAVMEC, North American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Consortium Meeting Report, 2010 및 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EAEVE) 출판물 참조.

11) 엘리엇 프라이드슨, 박호진 역, 프로페셔널리즘, 아카넷, 2007.